

풍요로운 땅 끝 고장

해남

강 욱 / 자유기고가

해남군은 한반도의 서남쪽 모서리에 자리 잡은 전라남도 최대의 군역으로 동쪽과 동북쪽만 강진·영암과 연결된 육지이고 3면이 모두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로 되어 있다. 옛날부터 이곳은 영산강 유역의 문화요소들이 파급되거나 형성되는, 혹은 반도의 중심 세력이 전파되는 막다른 골목으로서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더욱 크게는 이곳의 서남부를 경유하는 해로가 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문화 이동로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성격으로 주목되는 고장이다.

해남(海南)은 해남반도와 화원반도, 그리고 산이반도 등 3개의 반도를 군역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유·무인도에 긴 리아스식 해안선을 안고 있다. 이 해안선을 따라 굴곡마다에 간척지와 염전, 김 양식장 등이 발달하였고 화원반도와 영암군을 연결하는 영산강종합개발계획에서 보듯이 아직도 농경지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다.



지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윤선도를 비롯한 술한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거나 귀양 살이를 했던 곳이 바로 이 군이었음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 듯하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이 지방의 문화를 ‘유배의 문화’라고 잘라 말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조선 왕조 시대에는 이 군이 제주도를 드나드는 출입구 노릇을 했던 만큼 신호견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지방을 칭송하고 그 풍속을 기려서 지었다던 <호남가>에서 “제주 어선 빌어 해남으로 건너올 제.”라고 했던 것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실제로 해남군에서 사십 리쯤 떨어진 화산면 관동리—관머리 또는 관두량으로도 불렀다—에서 제주섬을 오가는 배가 머물렀다. 제주 목사나 임금의 사신은 말할 것도 없고 제주섬으로 귀양가는 술한 사람들이 이 관머리에서 배를 타고 떠나갔다.

그때만 해도 제주 뱃길은 목숨을 내걸고

건너야 할 만큼 거칠어서 배가 부서져 사람들이 바닷귀신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 그랬길래, 제주 민란 사건의 위무사로 간 청음 김상헌이 『남사록』에다 “바람이 점점 거칠어져 배에 물이 차고 놀란 물결을 따라 배가 잠겼다 빠졌다 하며, 바람과 물결이 서로 부딪쳐 그 가루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눈을 뜰 수가 없고 사공들은 다 토하고 자빠져 다만 하늘을 향해 염불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그 뱃길의 험함을 그려 놓았겠다. 이러한 험한 뱃길의 시발점이던 이 관머리는 간척 사업으로 그 지형이 바뀌어 지금은 옛날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 볼 수가 없다.

해남은 불교문화 유적의 산실이다. 그 중에서도 대흥사는 서산대사의 뜻과 법이 이어진 명찰이다. 대둔사라고 부르는 대흥사는 두륜산에 위치해 주위에 울창하고 깊은 숲이 펼쳐져 있다. 그 숲의 나무들은 나이가 많으면서도 건강하고 울창하기로 이름 높다. 큰 전쟁의 화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청허당 서산대사는 묘향산에서 입적하실 때 제자 사명당과 뇌묵당 스님에게 자신의 법을 해남 두륜산에 두라고 유지를 남겼다. 그곳은 ‘삼재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요, 만세토록 파괴됨이 없는 곳이며, 종통의 소귀처’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사의 유지대로 대흥사에 대사의 법이 이어졌으며, 그 때문인지 무수한 전란의 화를 피해갈 수 있

었다.

해장의 『대둔사지』에 따르면 대흥사는 나말여초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전통과 명성의 기록에 걸맞게 대흥사에는 50여 기에 달하는 고승들의 부도가 있다. 특히 서산대사의 부도는 다른 부도보다 섬세하고 미려한 조각으로 아름다운 맵시를 자랑한다.

대흥사의 가람 배치는 절터의 북쪽 기슭에서 흘러내려오는 냇물 금당천을 경계로 남북으로 나뉘어 있어 각각 남원·북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원에는 대웅보전과 침계루, 응진전과 백설당 등 중심 건물이 들어서 있고, 남원에는 천불전과 동국선원, 용화당 등이 자리하고 있다. 북원과 대흥사 전체의 중심축인 대웅보전은 구한말 화재로 불타 다시 지은 것으로 위풍 당당한 면모를 지녔다. 그렇지만 법당 안은 아늑하고 부드러운 장부의 기량과 아량을 보여 주는 절집이다.

이 절이 배출한 승려로는 ‘선교 불이’의 가르침과 함께 쇠퇴해 가는 ‘다선일미사상(茶禪一味思想)’을 일으켜 다도와 차 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선사가 있다. 초의선사는 다산 정약용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추사 김정희와 막연한 정을 나누었고, 승속과 유불을 초월하며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다. 추사가 초의의 차를 받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쓴 ‘명선’은 추사의 작품 중 가장 뛰어난 명작

으로 평가된다. 대둔사에서 두륜봉을 향해 오르다 보면 차나무 숲 사이로 움막 ‘일지암’이 나타나는데, 초의선사가 40여 년간이나 은거하던 곳이다.

해남군 연동리에는 삼백년쯤 전에 해남 윤씨의 선조가 터를 닦아 지은 집이 아직도 그 핏줄의 종가로서 남아 있다. 고산 윤선도가 사색당쟁의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와 은거 생활을 하면서 시를 지었던 곳으로 더욱더 잘 알려진 이 집은 대문, 안채, 사랑채, 사당, 제각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그 규모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호남 지방의 양반층 집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민가라는 평가를 받아 사적 167호로 지정되었다. 특히 이 집의 사랑채는 해마다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소낙비 쏟아지듯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하여 ‘낙우당’으로 따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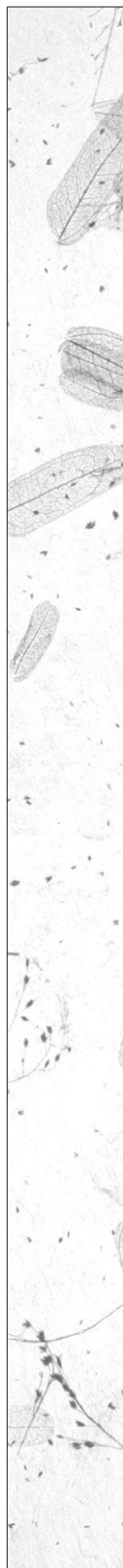
해남 윤씨들이 그 집안의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은 이 종가의 집채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다. 웬만큼 내로라하는 집안에서도 좀처럼 지니지 않은 이 나라의 보물이 셋이나 이 집에 있으니, 곧 이 집안에 대대로 전해 오는 ‘윤씨 가전고화첩’과 ‘고산 수적 관계 문서’와 ‘노비 문권’이 그것이다.

또 낙우당 뒤쪽에 있는 덕음산 중턱에는 나이가 삼백 살이 넘는 비자나무 오백 그루쯤이 울울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천연 기념물 241호로 지정받았다. 음력 8월

추석쯤이나 9월 초에 지방질이 많은 붉은 자죽빛 열매가 열리는 이 비자나무의 열매는 한방에서 촌충을 없애는 특효약으로 쓰인다.

해남 윤씨 종가에서는 해마다 뒷산의 비자 열매를 주워 이것을 먹등구미나 짚 소쿠리에 담아서 짚수세미로 매우 문질러 속껍질을 벗긴다. 껍질을 벗긴 알맹이는 엿이나 꿀을 발라서 붉은 통깨나 콩가루에 고물을 묻히듯 굴려 비자강정을 만든다. 아직도 해남 윤씨 종가에서는 비자강정을 만들어 두고 사랑에 드는 손님을 대접할 때 선보이는데 그 맛은 이곳에서가 아니면 좀처럼 보기가 어렵다.

해남 지방은 문화유산이 무척 풍부한 곳이다. 특히 문내면 우수영 지방의 강강술래는 1965년 2월 15일에 중요 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받았다. 아리따운 처녀들이 손을 맞잡고 빙빙 돌며 뛰노는 강강술래의 모습을 두고 해남에서 태어난 시인 이동주는 일찍이 「강강술래」라는 시에서 “여울에 몰린 은어떼 / 뽀뽀꽃 손들이 둘레를 짜면 / 달무리가 비잉빙 돈다.”라고 말했다. 믿기 어려우나,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서 온다’는 뜻의 ‘강강수월래’는 곧 일본 군사가 바다를 건너서 침입하니 늘 경계하라는 한자 표현에서 나왔다고 짐작한다. 강강술래는 이 지방의 전설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에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이 왜군에게 우리 군세의 강함을 보이기 위한 전술의 하나로 보급시켰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해남 우수영이 곧 강강술래의 발상지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훨씬 앞선 옛날부터 있었던 강강술래라는 민속놀이를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의병 전술로서 이용했다고 말한다. 아무튼 이 놀이는 “전라도에 우수영은 / 우리 장군 대첩 지로 / 어리석은 왜적들은 / 야주불에 속아 죽고 / 쇠고리에 걸려 죽어 / 울도 어족 밥이 되고 / 허세비에 속아 죽어 / 피 섬 바다 되었다네.”의 노랫말이 보여 주듯이 이순신의 명량 대첩과 관계가 깊기는 한 듯하다. 우수영 강강술래는 해남군 문화원 주최로 지난 82년부터 추석전후 2일간 해남 서림공원에서 ‘강강술래 향토축제’로 펼쳐진다.

해남 반도 끝의 땅 끝은 우리나라 육지의 끝이다. 1981년 사자봉 위에 세워진 ‘땅 끝비’에는 ‘태초에 땅이 생성되었고 인류가 발생하였으며 한겨레가 국토를 그려 국가를 세웠으니 맨 위가 백두산이며 맨 아래가 이 사자봉이니라.’라고 새겨져 있다. 사자봉의 전망대에 오르면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점점이 흩어진 섬들을 보며, 이곳이 이 땅의 끝이라는 걸 실감하게 된다. 운이 좋아 날이

맑으면 한라산이 아스라이 보이는 이곳에서 사람의 발길이 아예 끈긴 것 같지만, 사실 이곳에서는 완도, 노화도로 가는 뱃길이 시작되기도 한다.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허준>의 촬영지인 해남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초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땅 끝’은 해남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한반도를 휘돌아 온 사랑과 정열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정점을 이루는 곳이라는 땅 끝에서는 아름다운 다도해의 비경을 만날 수 있다. 땅 끝에서 보는 새해 해돋이는 여느 곳에서 보는 일출과는 다른 느낌으로 장관을 이룬다. 이날은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과 사진작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